

청년고용 · 지역경제 두마리 토끼 잡는다

정부, 3조9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정부가 청년 실업과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지난 2015년부터 4년 연속 추경 편성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다.

초과세수 활용이나 국제 발행 없이 지난해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만 사용하기로 하는 등 재정 건전성 유지에 최대한 노력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청년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고용위기 지역 내 기업의 소득·법인세를 한시 면제해주기 위해 세법도 손본다.

연간 9500억원의 세제 지원 효과도 예상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2018년 추경예산안 및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추경안과 세법개정안은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하며, 4월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 이날 임시국회 내 처리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집행된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권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퍼주기'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거센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의 추경 편성은 2015년(11조 6000억원), 2016년(11조원), 2017년(11조 2000억원)에 이어 4년 연속이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두 번째로 모두 일자리용 추경이다.

다만 올해 추경에는 공공부문은 제외한다.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위기 지역과 업종에 대한 지원이 담겼다는 점에서 앞선 추경과 차이가 있다.

추경은 2000년 이후 올해까지 총 16번 편성했다. 추경이 없었던 해는 2007년, 2010~2012년, 2014년 등 다섯 번에 불과하다. 2001년과 2003년에는

각각 한 해에 두 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올해 추경 규모는 3조9000억원이다.

한자릿 수 추경은 2008년(4조6000억원)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2009년 28조 4000억원, 2013년 17조 3000억원에 이어 2015~2017년 3년간 11조원으로 편성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미니 추경'인 셈이다.

2000년 들어 올해보다 추경 규모가 적었던 해는 2000년 2조 3000억원과 2004년 2조 5000억원, 2006년 2조 2000억원 단 세 번 뿐이다.

청년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 지역·업종 지원대책(지역대책)에 각각 2조 9000억원, 1조원을 쓰기로 했다.

청년일자리 대책 규모는 올해 전체 청년 일자리 예산 3조원과 맞먹는다.

지역대책도 군산·통영 등 특정 지역에 한정해 지원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규모다.

청년일자리 대책은 특단의 담면과제

와 구조적 과제 대응의 두 가지 정책 방향으로 추진하게 된다.

담면과제는 4대 분야로 나눠 소득·주거·자산형성 지원에 가장 많은 1조 7000억원을 배정했다. 연간 12만개의 창업 유도를 위해서는 8000억원,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에는 2000억원, 선(先)취업·후(後)진학 지원과 취·창업 실질역량 강화에는 각 1000억원씩 투입된다.

구조적 과제 대응을 위해 규제개혁, 혁신성장 가속화, 교육·훈련 혁신,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을 추진한다.

지역대책은 구조조정에 따른 단기적 충격을 완화하고 기업 유지·대체보완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역시 4대 핵심 분야로 구분해 지역기업·협력업체 지원에 가장 많은 4000억원을 쓴다.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과 지역투자·관광·인프라 지원에는 2000억원, 근로자·실직자 지원에는 10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최수호 기자



NH농협은행 전북 기업여성 실무교육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5일 관내 여성팀장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본부에서 기업여성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마케팅을 통한 기업분석 및 산업동향 파악, 재무제표를 활용한 신규고객 발굴을 통해 건전여신 확대,

질의질문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기업여성 팀장의 전문성을 높여 침체된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지원을 확대,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 전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금융기관으로 농업 및 산업동향 파악, 재무제표를 활용한 신규고객 발굴을 통해 건전여신 확대, /최수호 기자



NH농협은행 전북,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시 금리우대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 때 중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고객에 대해 주택자금 대출시 0.2%p 금리우대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중이다. 금리 우대대상은 프리미엄모기지론·채움모기지론의 부동산 담보대출과 채움전세우대론·전세금안심대출의 전세자금대출 등이다. 또한 상품별 우대금리 총 한도 내에서 0.2%p를 우대한다. /최수호 기자

“청소년들이 꿈을 이루고 지역사회에 도움 되길”

향토은행인 전북은행이 5일 김제 지역 청소년을 위한 장학사업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권한대행 이후천)에 장학금 1억6천만원을 기탁했다.

전북은행은 도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전북지역 향토은행으로 지역민을 위한 친절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기업의 사명감을 가지고 임직원 모두가 급여 1%를 적립하여 매년 명절 때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이 행복하고 편안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선물꾸러미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지역 청소년을 위해서는 용지면과 백구면에 희망의 공부방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등 이웃사랑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2011년부터 김제사랑장학재단 기금 관리를 맡고 있는 금리로

서 지금까지 김제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을 매년 기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기탁한 금액은 총 15억 8천만원에 달한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김종원 전북은행 부행장 및 고찬배 전북은행 김제지점장은 “김제시의 청소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위해 학업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되었으며, 혜택을 받은 청소년들이 꿈을 이루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성장하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후천 김제사랑장학재단 이사장권한대행은 “이 장학기금은 김제의 희망을 열어가는 장학사업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김제시의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제사랑장학재단은 2007년



향토은행인 전북은행이 5일 김제지역 청소년을 위한 장학사업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권한대행 이후천)에 장학금 1억6천만원을 기탁했다.

8월 설립되어 지금까지 297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내고장 학교보내기 격려금 사업, 과감한 장학금 지원사업, 수도권 못지않은 교육기회제공을 위한 지정선학당 운영, 찾아가는 생

활과학교실, 임시 교육설명회, 인터넷 동영상 수강권 지원 등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